

산책하는 인간

글.백경호

작년 봄, 패션쇼의 사진들을 보다가 한 모델에 눈길이 갔다. 그 모델은 줄무늬 정장을 입고 있었다. 블랙 색상의 바탕에 가는 흰 선이 줄줄이 배치된 통이 큰 옷이었다. 나는 인물이나 옷보다 걷는 사람의 형태와 동세를 가시화하는 스트라이프 무늬에 초점을 두고 한동안 관찰했다. 나는 걷는 사람의 포즈를 연구하며 동세를 바탕의 형태로 구현해보기로 했다. 그동안 해온 회화의 원과 사각형으로 구성된 단순하고 정적인 바탕과 어떤 변별점이 생길지 궁금했고 기존과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었다.

계획 드로잉은 비례를 엄두에 두며, 외곽과 신체 각 부분의 형태를 정한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캔버스에 제작된다. 나는 미묘한 깊이감과 입체감을 주기 위해 캔버스 각 부분의 두께를 다르게 설정하고, 각 부분을 부조처럼 보이게 결합한다.

초기에는 채색방식이 명확하진 않았다. 하던 대로 하고 기존의 작업과 다른 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기존에 해오던 대로 부분적으로 표현을 흘뿌리고 서로 연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채색해보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내용과 형식이 따로 노는 듯하고, 씩 어울리지 않는 포장을 하는 듯한 채색을 되풀이하는 인상을 계속 받게 되었다. 그래서 큰 인상이 좀 명확해 보이고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작업을 이끌어 보기로 했다. 채색 모티프를 처음의 모티프인 스트라이프 무늬로 돌아가기로 했다. 나는 기존에 채색된 화면 위에 새로운 질감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그 위에 흙을 붙였다. 흙은 물감으로 구현하기 힘든 질감을 제공하며, 내게 땅바닥이나 길을 떠올리게 하는 재료다. 나는 화면에 전체적으로 흙을 붙인 후, 흰색 유화물감으로 일정 간격을 띄우며 선을 그어가며 작업을 완성했다. 나는 이 흰 선이 신체를 형상화한 다양한 형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준다고 느낀다.

완성된 작업은 열화된 오퍼트 같기도 하고 토속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별 노력하지 않은 이 작업은 내게 전작보다 더 사람처럼 다가온다. 뭔가 움직이고 있는 듯해서 그런 것일까? 사람을 추상하는 감각에 변화가 생긴 걸까?

걷는 사람 형상의 작품은 내게 작업과 관련된 중요한 행위를 떠올리게 해준다. 이는 걷기이다. 걷기는 내게 불안을 잠재우게 해준다. 그리고 걸으면서 찾은 작고 소중한 것들로 허전한 내면을 채워준다. 걸으며 생각한 시간은 사실 작업의 시간이었고, 작업과 작업 사이를 항상 조용히 연결하고 있었다.

걷기 외에도 내 작업과 작업 사이에 어떤 행위들이 있을까? 길을 걸으며 흔들리는 나무를 보는 일. 대상의 떨림과 바람을 그림에서 표현해보고자 했던 바람. 작업실에 출근하자마자 전날 쓴 붓을 천에 닦으며 왜 이 흔적은 아름다울까 생각했던 일 등. 생각해보면 사소하고 기쁜 순간들이 작업과 작업 사이에 있었다. 내가 봐온 것들과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그것들은 언어화되기 이전의 감각이며, 기쁨의 감정과 연결돼있다. 나는 그 감각들을 바로 캔버스에 펼치진 않았다. 그리기 전에 사유의 공간에서 그들의 형태,

구성, 표현의 흐름을 상상하며, 캔버스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한다.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내 머리 위에 지고 있는 사유의 공간과 이를 구현하는 캔버스 사이에서 서로를 관찰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경비원 같은 역할이다. 나는 일상과 맞닿은 감각으로 사유의 공간에 조형 요소를 배치해본다. 그곳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거칠게 분다는 상상을 하며 새로운 회화작업을 진행했다. 내면의 밑바닥에 남아있던 것들을 살피고, 이를 이미지나 색, 행위로써 구현한 작품들은 실제 공간에서 어떤 풍광을 비추고 있을까?